

전력사업

미국 전력회사의 『사업다각화』 추진현황

박 형 실
한국전력공사 뉴욕지사 부장

1. 변화하는 미국 전력사업 환경

미국 정부는 1992년 에너지정책법(National Energy Policy Act)에 의해 전력사업의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기능을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연방정부는 송전선 개방(Open Access)에 따른 도매전력 타성(Wholesale Wheeling)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전통적 가격서비스, 독점사업권 및 소매탁송분야의 규제완화를 추진함으로써, 수요자는 가까운 시일내에 임의대로 전력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도매전력을 중개하는 전력거래업자의 등장으로 지역적 독점권을 가진 전력회사를 발전, 송전 및 배전회사로 분리시킬 것이며, 전기요금에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전력회사들은 발전소건설 및 생산보다는 탁송분야에 치중하게 될 것이다. 향후 미국 전력사업은 고객 위주의 경쟁체제로 바뀌어 갈 것이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력사업자들은 2000년대를 대비한 새로운 사업전략을 필요 하고 있다.

2. 전력성장의 한계와 사업다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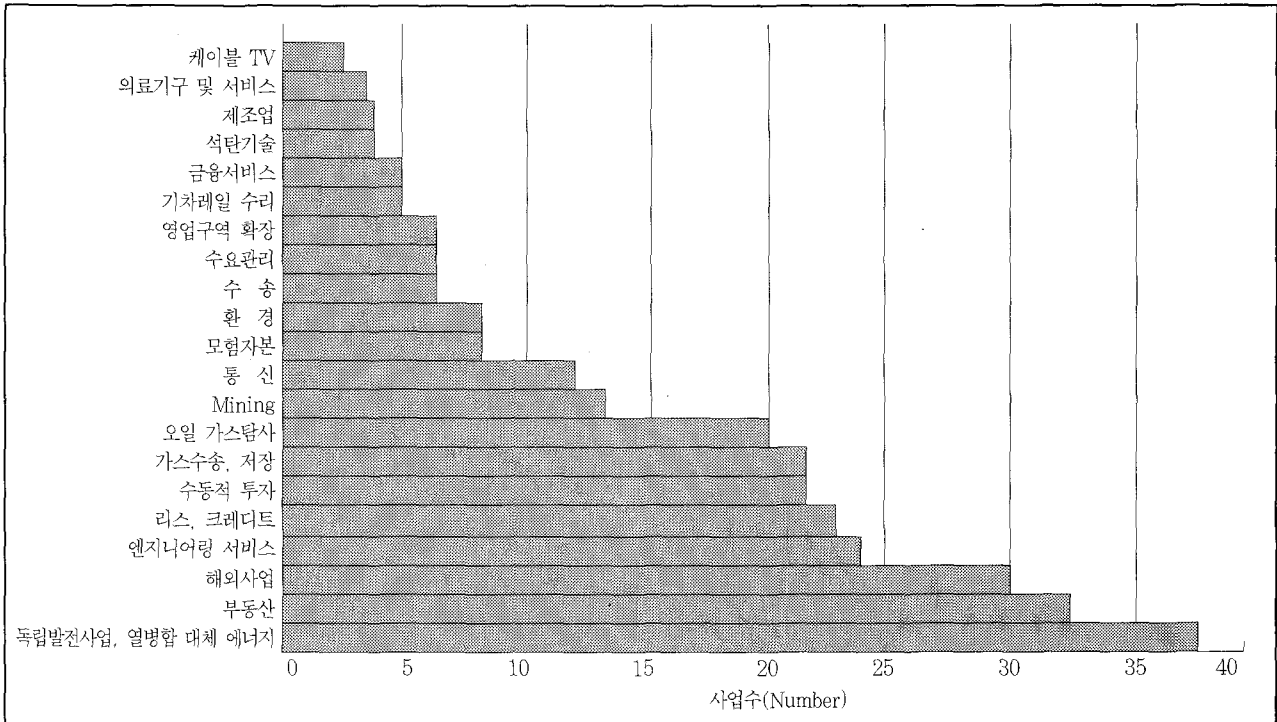
미국 전력시장은 빠른 속도의 규제완화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전력수요 성장률이 연1~2%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기존 전력회사들이 살아남기 위한 경영전략의 하나로 해외사업을 포함한 사업다각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미국 전력회사들이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 ① 전력수요 둔감 및 규제완화(Deregulation) 등으로 전력사업의 리스크(Risk) 증가
- ② 전력설비의 최대활용 필요
- ③ 전력사업의 세계화 추세
- ④ 전력사업의 경쟁심화에 따른 생존전략 등이다.

EEI(Edison Electric Institute)가 수행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198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 전력회사들의 사업다각화는 전력회사들에게 많은 이익을 제공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참고로 미국 전력회사들의 현재 사업다각화 진출분야는 그림 1과 같다.

그리고 미국 전력회사들의 사업다각화의 특징을 보면,

- ① 국·내외의 독립발전사업(Independent Power Ventures) 대폭 참여
 - SCE(Southern California Edison)의 자회사인 미션에너지(Mission Energy)는 해외에 IPP(독립발전사업자)로서 5,446MW('96.7)의 발전설비 용량을 맡고 있음.
 - 세계 IPP주요시장은 중국(67), 인도(59), 인도네시아(49), 필리핀(45), 태국(44), 파키스탄(41) 등으로 주로 아시아국가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 ※괄호안 숫자는 '96.7월 현재 독립발전사업 숫자임.
- ② 대규모 프로젝트보다 다량의 소규모 프로젝트에 투자
- ③ 수요관리(DSM) 및 에너지절약 관련사업 투자 증가
- ④ 부동산 관련 자회사 운영 등이다.



〈그림 1〉 미국 전력회사의 사업다각화 진출분야

그림 2는 향후 미국 전력회사들이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다각화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진출 분야로서, 모든 사업 분야가 국내 기존업체와 경쟁을 해야 할 분야가 많다. 그래서 많은 미국 전력회사들은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전력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외사업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미국 전력사업의 세계화 추세

1992년 에너지정책법 제정 이후 많은 미국 전력회사들은 세계적인 민영화추세와 외국 전력회사들의 재편(Restructuring)에 힘입어 해외전력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미국 전력회사들은 외국의 전력시설을 구입, 운영하거나 민영전력사업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동안 국내에서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Know-how)를 최대한 활용코자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전력회사들은 국내 전력시장에서는

더 이상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해외전력 시장 진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1은 미국 전력 회사 및 전력관련 회사들의 해외진출 현황을 일부 요약한 것이다.

4. 사업다각화 실패요인과 성공요인

가. 실패요인

- ① 전력사업본업(Utility's Core Business)과 동떨어진 사업분야에 진출
- ② 시장변화에 적응할 수 없는 대형프로젝트에 참여
- ③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분석 미흡

나. 성공요인

- ① 최고경영층의 의지 및 막강한 팀워크
- ② 충분한 재정

전력사업

- ③ 성장산업분야 진출
- ④ 전력사업관련 소규모 프로젝트부터 시작(대형 프로젝트 지양)
- ⑤ 조인트벤처(Joint Venture)형태로 사업에 참여 (충분한 숙련인력 확보)

〈표 1〉

회 사 명	사 업 구 분	진 출 국 가 명
AEP	엔지니어링 서비스	파키스탄
CMS	천연가스 개발사업	호주, 중국, 콜롬비아, 기니아, 독일, 뉴질랜드, 뉴기니아, 태국
Dominion Resources	석유개발	에쿠아도르
Duke Power	발전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벨리즈
Entergy	송배전	아르헨티나
Entergy	송배전	아르헨티나
Houston Industries	발전	아르헨티나
Montana Power	발전	아르헨티나
NIPSCO	발전	영국
Northeast Utilities	Waste to Energy	영국
PSI	발전	영국
San Diego G&E	발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아르헨티나
SCE Corp	가스	영국, 이탈리아
Southern Company	발전	영국, 스페인
	발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아르헨티나, 바하마, 칠레, 터키, 우루과이, 푸에르토리코, 인디아, 필리핀, 태국, 중국
UtiliCorp	천연가스	영국, 뉴질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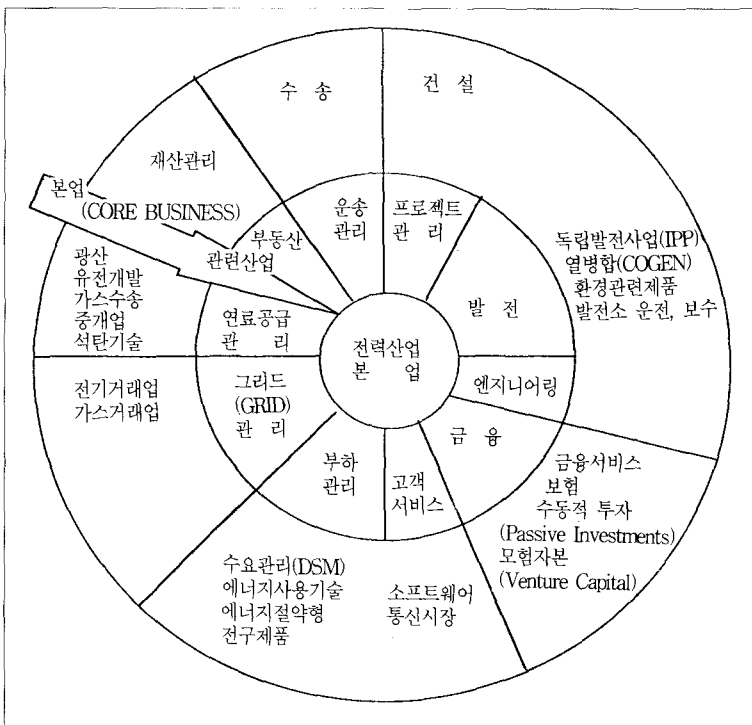
5. 결 론

미국 전력시장은 전력수요의 낮은 성장 및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국 전력회사들이 기존의 경영방식으로는 전력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미국 전력회사들은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전력관련사업 및 전력사업의 세계화 추세에 힘입어 해외사업 내지 사업다각화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전력사업본업(Utility's Core Business)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성장산업분야 [예:IPP (독립발전사업), DSM(수요관리), 열병합(Cogen), 통신분야 등] 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전력수요 증가율이 연 10%를 초과하고 있지만 앞으로 10년후 쯤이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처럼 전력수요 성장률이 연 1~2%에 머물게 될 것이다. 또한 향후 10년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국내 전력시장도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력설비를 최대한 이용하여 21세기 성장산업인 정보·통신사업분야 등에 사업다각화를 기하고, 그동안 축적된 전력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중국, 필리핀 등 많은 아시아 국가, 더 나아가 세계 전력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향후 10년후를 대비하는 매우 중요한 경영전략이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과 장·단기 종합적인 실천계획을 세워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2〉 미국 전력회사의 향후 사업다각화 진출예상분야